

판권 수출·PPL에 목맨 제작사... 늘 불안한 돈줄

제작비 30~40% 해외수출·PPL 충당 리스크 생기면 감당할 여력조차 없어 표준출연계약서도 제대로 이행 안돼 구제책 모색 위한 공감대 형성 중요

방송가의 고질적 문제인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또다시 터졌다. '마성의 기쁨' 주인공 송하윤과 이주연,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의 연출자 김규태 PD와 조윤경 작가,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의 주연배우 성훈, '사자'의 일부 연기자와 스태프가 길게는 3년째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제작환경이 나아지는 추세이고 해외서 리메이크할 만큼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제작되지만 일부 현장은 여전히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출연료 미지급 피해액 32억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상파 3사 출연료 미지급 피해액은 32억원에 이른다. 서류상 미지급액의 책임은 드라마 제작사에 있지만 상황을 들여다 보면 조금 복잡하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드라마 편성이 확정되면 해당 방송사로부터 총 제작비의 60~70% 가량을 외주제작비로 받는다. 나머지 제작비는 간접광고(PPL)나 판권판매 등을 통해 충당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시청자의 반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중국 수출길이 3년째 가로막혀 해외 수출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고, 방송광고 규제 탓에 기업의 PPL 투자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최근 드라마 제작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표준출연계약서의 항목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내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며 미지급 사태를 야기한다. 2013년 제정된 방송 제작·출연 표준계약서에는 '제

작사에 문제가 있을 시 방송사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권고 사항인 만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드라마 제작에서 방송사와 제작사간 약속인 보증보험도 때론 무용지물이다. 제작사가 출연료 완납을 증명하면, 방송사는 말아둔 5억원의 보증보험을 제작사에 돌려준다.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절차이지만 후지부지될 때도 있다. 최근 '마성의 기쁨'은 출연료 미지급 상태에서 방송사가 보증보험을 제작사에 돌려줘 논란을 가중시켰다.

●"근본적 해결책만큼 동업자 정신 필요"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여전한 데는 명확한 제도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표준출연계약서가 있어도 이를 강력하게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광고수익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정당한 수입배분 정립이 이런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는 대책이란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방송업과 관련해 표준화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작사(수급사업자)가 콘텐츠 최초 개발 등 제작과정의 참여한 비율에 따라 방송사(원사업자)와 공동 소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연노 송창곤 대외협력국장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 사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마성의 기쁨',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위에서부터) 등을 포함한 제작사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속출하면서 강력하게 제재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 각 드라마 제작사



#해시태그 컷



송하윤 심쿵포즈

그림 워너원의 송성우가 콘서트 준비에 한창이다. 송성우는 "으쌔으쌔"라는 제목으로 연습실 바닥에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검정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쓰고 편안한 차림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도 잘 생긴 외모와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진다. 팬들은 "연습 중에도 멋지다" "포즈가 아이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성우를 포함한 워너원 멤버들은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프로젝트 그룹 계약을 마무리했다. 24일부터 27일 까지 여는 콘서트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스포츠동아 #워너원 #송성우 #구슬담

퀸 이어 BTS도 '싱얼롱'

(보헤미안...) (BTS 월드투어)

26일 95개국 스크린 첫 개봉
싱얼롱 버전 상영관까지 접수
영화보며 떴창...새 문화 기대

그림 방탄소년단이 밴드 퀸의 열기를 식히며 새로운 영화관 관람 문화까지 이끌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8월25일과 26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친 월드투어의 첫 무대 'BTS 월드 투어: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BTS World Tour: Love Yourself in Seoul) 실황을 담은 동명의 영화를 26일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 CJ CGV에서 공개한다. 전 세계 95국 3800개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하는 영화는 이미 각 스크린별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CJ CGV의 싱얼롱 상영관을 '접수'했다는 점이다. 밴드 퀸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싱얼롱 열기를 순식간에 식히는 분위기다.

특히 '웹드라마'라 불릴 정도로 '보헤미안 랩소디' 싱얼롱 버전 상영관의 '성지'처럼 팬들에게 여겨진 서울 영등포구까지 방탄소년단의 영화를 상영한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열기가 싱얼롱 상영 버전에도 큰 힘을 기렸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읽게 한다. 이에 따라 19일 현재까지 985만여명의 누적 관객을 모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1000만명 돌파 시점 역시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향후 영화 관람문화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방탄소년단의 팬덤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헤미안 랩소디'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영화까지 싱얼롱 상영 버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영화를 보며 함께 노래를 즐기는 관람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인도영·김희조 기자

출연료 미지급 사각지대 '웹드라마'

성훈, '나길연' 출연료 1억원 못받아 해결방안 방송사 국한...정부도 손놀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웹드라마에서도 발생했다. 플랫폼이 다양해지는 만큼 제작 전반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는 보호 장치나 적용 가능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나길연)의 주인공인 성훈은 출

연료 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성훈 측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방송가에서는 미지급 출연료를 쉽게 받지 못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기존 미지급 사태 및 해결 방안이 방송사와 제작사에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나길연'은 OTT(Over The Top·인터넷 TV) 플랫폼 옥수수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다. OTT 플랫폼은 표준계약서상 명기된 '방송사'에 속하지 않는다. 이번처럼 웹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논란이 불

거질 경우 보호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미지급 피해를 입은 배우는 계약상대인 제작사에 해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제작 방식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그 피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성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길연'의 제작사는 YG스튜디오플렉스. 하지만 실제 제작을 맡은 곳은 그로부터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바람이 분다. 위탁 계약사인 바람이 분다의 대표가 출연료 해결을 미루면서 논란이 촉발됐지만 YG스튜디오플렉스는 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제작비 다이어트? 출연료 다이어트!"

설경구·변요한의 의미있는 행보

제작비 다이어트 선언 이준익 감독 두 배우도 제작비 수준 몸값에 OK

배우 설경구와 변요한의 특별하고도 의미있는 도전이 영화계에 훈훈한 미담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이 최근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 출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작 상황을 고려해 몸값을 제작비 수준에 맞추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작진이라면 누구나 협업하길 원하

는 두 배우의 뜻심 있는 움직임에 영화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설경구와 변요한은 현재 '자산어보' 출연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1000만 사극 '왕의 남자'부터 '사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바탕으로 사극을 이야기하는 연출 세계로 관객을 사로잡은 이준익 감독이 조선 후기 정약전과 젊은 어부를 통해 민초들의 삶을 따뜻하게 담아내는 영화다.

특히 '자산어보'는 최근 '동주' '박열' 등 일제강점기 이야기로 저력을 드러내면서도 한국영화 시대극 평균 제작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완성한 감독의



설경구

변요한

'지향'과 '저력'을 이어가는 작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프리프로덕션이 한창인 만큼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극영화가 보통 100억원대로 제작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산어보'는 대략 그 절

반 수준으로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이준익 감독은 제작비를 높이는 일보다 더 어려운 비용 축소를 사극을 완성하는,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감독과 오랜 기간 교류하면서 신뢰를 쌓은 설경구가 이런 도전에 공감해 뜻을 보낸 가운데 변요한도 긍정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20일 "영화 제작 규모나 출연료 문제를 떠나 프로젝트를 함께 하려는 배우들이 제작진, 감독의 뜻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사례"라며 "출연료는 물론이고 지분까지 챙기는 배우가 늘는 상황에서 '자산어보' 프로젝트는 출발부터 다른 위치"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